

광양시 ‘이차전지 특화단지’ 유치 총력

기초원료 기반 체계 갖춘 최적지
전담팀·기업 협의체 등 지정 준비
‘K-배터리 핵심 도시’ 도약 박차

광양시가 산업통상부의 K-배터리 경쟁력 강화 방안의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추가 지정 공모 계획을 적극 환영하며,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추가 지정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산업통상부의 방안은 글로벌 배터리 공급망 경쟁 심화와 전기차 캐즘 등 시장 변화 속에서 국가 차원의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니켈·리튬 등 기초원료 생산을 집중 지원하는 이차전지 특화단지를 추가 지정해

국내 배터리 산업의 전주기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광양은 국내 최대 규모의 항만·물류 인프라와 포스코그룹 중심의 이차전지 전주기 생태계가 집적된 지역이다.

특히, 국내에서 유일하게 해외 원광 정제-전구체·양극재 생산-재활용으로 이어지는 기초원료 기반 전주기 체계를 갖추고 있어 산업통상부 지원 정책과 연계한 특화단지 추진 여건이 더욱 뚜렷하다.

시는 지난해부터 산업통상부와 국회, 관계기관을 대상으로 이차전지 기초원료 중심 특화단지 추가 지정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또 이번 발표에 발맞춰 ▲기업 투자 의향 확보 ▲전라남도 및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과 공동 대응 ▲정부 수요조사 신속 제출 ▲공모 대응 전담팀 운영

▲기업 협의체 및 협력체계 가동 ▲R&D·인력양성·인프라 확충 계획 수립 등 특화단지 공모 대응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오는 22일 전남도와 함께 ‘광양만권 이차전지 특화단지 유치 토론회’를 개최해 정부 정책 방향과 지역 산업 전략을 공유하고, 산·학·연·관 협력 방안을 논의하며 특화단지 지정의 필요성을 국회 차원에서 공론화할 예정이다.

정인화 광양시장은 “정부가 이차전지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기초원료 중심 특화단지를 추가 지정하기로 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결정”이라며, “광양시는 국내에서 기초원료·소재·재활용 전주기 체계를 모두 갖춘 유일한 잠재 후보지로서 공모에 적극 참여해 반드시 특화단지 지정을 이끌어 내겠다”고 강조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순천시가 맞춤형 지역특화작목 육성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고품질 딸기 육묘 생산체계 구축에 박차를 가하게 됐다. 순천 딸기묘.

순천 딸기묘, 프리미엄 시장 도약 발판 마련

전남도 지역특화작목 육성 선정

순천시가 최근 전남도 주관 ‘2026년 맞춤형 지역특화작목 육성 공모사업’에 선정되면서, 고품질 딸기 육묘 전문 단지로 새롭게 발돋움할 기틀을 마련했다.

이번 선정된 사업은 ‘순천시 고품질 딸기 육묘 생산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 급격한 기후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스마트 농업 기술을 도입하고, 딸기묘 생산 체계 구축을 통해 딸기묘 품질을 향상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순천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시설 노후화와 고령화로 인해 약화된 딸기묘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해

시 직영 딸기 육묘시설을 구축해 건강한 무병묘를 딸기 육묘 농가에 안정적으로 보급할 계획이다. 또한 출하 전 딸기묘에 대한 꽃눈 검사를 제공해 육묘 단계에서부터 품질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시는 이러한 체계적인 품질 관리가 육묘 농가의 소득 증대와 지역 딸기 육묘·재배 전반의 생산 품질 향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공모사업 선정은 순천 딸기묘가 고품질 프리미엄 시장으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라며 “스마트 기술을 적극 활용해 농업의 고령화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 농업의 기반을 더욱 확고히 다지겠다”고 말했다.

/순천=김은종 기자 ejkim@kwangju.co.kr

보성 읍포항 국가어항 지정 기본설계비 내년 정부예산 반영

지정편 717억원 투입 순차 개발

보성군이 3일 읍포항의 국가어항 신규 지정을 위한 기본설계비 9억원이 2026년 정부예산안에 반영됐다고 밝혔다.

이번 예산 반영은 보성군이 2015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국책사업 건의 과정의 결실로, 읍포항의 발전 잠재력을 중앙정부가 공식 인정한 데 큰 의미가 있다. 현재 지방어항인 읍포항은 최근 ▲방파제 조성, ▲회전수산물 위판장 확충, ▲해양환경 개선 등을 통해 수산물 생산 거점항이자, 해양관광 중심지로 빠르게 성장해 왔다.

또한, 어업활동 기반이 강화되면서 어민 소득 증대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하고 있다.

정부예산안 반영으로 향후 기본설계를 거쳐 국가어항 지정·고시되면, 공공개발사업이 차례대로 추진될 예정이며, 1·2단계에 포함한 전체 개발에는 약 717억원의 국비가 투입될 전망이다.

읍포항이 국가어항으로 지정되면 ▲어선 수용 능력 확대 및 안전성 강화, ▲신규 부지 조성(2만



보성 읍포항 전경.

2845㎡) 및 핵심 어업 인프라(냉장·냉동시설, 어구 건조·아직장, 창고 등) 확충, ▲관광·레저·휴게 시설을 유치 등을 통해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항만 관리 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KTX-이음 개통으로 전국이 만나질 생활권으로 연결되면, 읍포항은 해양 교

통의 허브항·수산물 생산 거점항·해양관광 중심항으로 도약해 남해안 관광의 새로운 중심지가 될 것”이라며 “이번 국가어항 예산 확보는 향후 100년을 준비하는 보성 해양전략의 핵심 동력으로, 어촌·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보성=김은택 기자 kyb@kwangju.co.kr

곡성군 소아과, 전남도 공공보건의료 최우수상

곡성군이 지난 2일 신안에서 열린 ‘2025년 전라남도 공공보건의료 성과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

이번 성과대회는 전남도 내 공공보건의료의 추진 실적과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의료 취약지 문제 해결을 위한 지자체 간 협력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이다. 또한 지역사회 내 다양한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이 서로 협력하고 소통할 수 있는 장을 조성함으로써, 향후 공공보건의료 발전을 더욱 촉진하기 위한 취지로 개최됐다.

곡성군은 ‘65년 만의 기적, 곡성군 소아과 개설’ 사례를 통해 공공보건의료 분야 최우수기관으로 선

정됐다. 이는 오랜 기간 지역에 소아과가 없어 영유아 진료 공백이 지속되던 상황에서, 군이 적극적인 자원정책과 의료 인력 확보 전략을 추진해 소아과 유치에 성공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것이다.

이번 소아과 개설은 단순한 의료기관 확충을 넘어, 지역사회 전반의 건강문화 개선에도 기여하고 있다. 영유아 건강관리 프로그램, 부모 대상 건강 교육, 예방접종 안내 등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가 병행되면서 주민들의 건강 관심이 높아졌고, 지역 내 의료 접근성 향상으로 긴급 상황에서도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졌다.

또한 곡성군의 사례는 농촌·의료취약지에서도

주민 중심 공공보건의료 모델을 구현할 수 있다는 점을 입증하며, 향후 다른 지자체에도 벤치마킹 가능한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이로써 군은 단기적 의료 공백 해소를 넘어, 지속 가능한 공공보건의료 체계 구축과 주민 건강 증진이라는 장기적 목표 달성에도 중요한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다.

곡성군 관계자는 “이번 최우수상은 군민의 간절한 요구와 행정의 적극적 노력이 이루어낸 값진 결과”라며 “앞으로도 공공의료 기반 확충과 의료취약지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군은 이번 성과를 계기로 향후 지역 필수의료 안정화를 위해 모자보건 강화, 군민 건강관리체계 구축, 지역 의료기관 협력 확대 등 다양한 공공보건의료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곡성=박순규 기자 psk8210@

여수시 ‘사랑의 온도탑’ 제막...62일 모금 돌입

여수시가 지난 2일 시청 현관 앞에서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주관하는 ‘희망2026나눔캠페인’ 사랑의 온도탑 제막식을 개최했다.

사랑의 온도탑은 전남 동부권 나눔 실천의 상징으로, 여수시청 앞 로터리 1호 광장에 설치됐다. 이번 캠페인은 ‘행복을 더하는 기부, 기부로 바꾸는 전남’을 슬로건으로 이달 1일부터 내년 1월31일까지 62일간 이웃사랑 성금 모금 활동을 진행한다.

이날 제막식에는 정기명 여수시장, 백인숙 여수시의회 의장, 허영호 전남공동모금회 회장, 아너소사이터티 회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캠페인 출범을 함께했다.

‘희망2026나눔캠페인’ 출범과 함께 ㈜스타테크 2000만원, ㈜제일E&C 3000만원, ㈜승진엔지니어링 2000만원, ㈜대신가공 1400만원, ㈜용호기계기술 1000만원, (사)여수국가산업단지경영협의회 300만원, 한국산업단지공단 전남지역본부 200만원 등 기업의 첫 성금 기부가 이어졌다.

또한 양세열 (유)세광철강 대표이사가 여수 26호 아너소사이터티 회원으로 신규 가입하며 사랑의 온도탑에 따뜻한 마음을 더했다.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2025년 여수지역 복지사업(신청사업, 차량지원, 월동난방비, 복권기금) 지원금 5억 2375만원을 관내 사회복지시설에 전달했다.

한편 전남 사랑의 온도탑 캠페인 목표액은 총 113억 9000만원이며, 목표액의 1%인 1억 1390만원이 모일 때마다 온도탑 수온주가 1도씩 올라간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kwangju.co.kr



여수시 ‘사랑의 온도탑’.



창고 매 매·임대

대 지 920평

건 물 680평 (1·2층)

광주광역시 남구 송하동 127-3
(도로변·육교옆)

문의 062.220.0513
010.3646.2701